



두번째 회, 오만가지 병을 다 치유해 주신 구세주

비몽사몽간에 어깨를 만져주시니 고통이 싹 사라졌다. 구세주는 사람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셨다

소사신앙촌에 올라온 후 오만제단을 다녔고, 영모님을 자주 뵈게 되니 좋았다. 영모님에게 안찰을 딱 한 번 받아봤다. 그날 안찰을 받고 나갔는데 함께 같이 갔던 집사가 안찰을 한 번 더 받자고 하기에 그럴까 생각하는데 박 장로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 엄마가 안찰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안찰을 더 받자고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죄송해서 그대로 돌아왔다.

석사집 관장이 이끄는 교회에 나간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전도관을 안 나가게 되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전도관을 안 나가니 여러 사람이 와서 다시 전도관을 나오라고 권유했지만 그래도 안 나갔다. 어느 날 당시 유명했던 석사집 관장이 지금 부천성모병원 쪽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며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보자고 권하여 석사집 관장을 만나보니 석관장을 처음 만나는 날 전도관 다닐 때 맛보았던 기쁨과 사랑이 느껴져서 그곳을 나가게 되었다.

석관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 들어가면 3일을 못 견디고 나오곤 했다. 그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만일 여기서 못 이루고 다른 데서 이루어지면 그곳에 같이 가자고 약속까지 하였다. 승리제단에 온 후 주님께 석관장을 전도해 줄까요 여쭙보니 세상 만민들이 물러올 때 올 것이니 전도하지 말라고 하셔서 석관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석관장이 우리집 근처에 교회를 지어서 자기 동생인 전도사 한 명을 그곳으로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사를 항상 잘 공경하였다. 이곳에서도 전도사님 양복을 드러드리는데 등 여러 가지 수발을 들었는데 나의 일을 시키는 집사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사에게 그러면 당신이 전도사님 잘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전도사님은 그 집사가 다림질도 잘 못하고 하여 나에게 부탁하곤 하였다. 그 집사는 나를 원수 대하듯 미워하였다. 심지어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다녔던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석관장은 자신의 교회를 없애버렸고, 우리집 근처에 있던 교회를 내가 구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밀실이 바라보이는 곳이었다. 석관장은 예멘성회의 이영수나 그런 사람과 다르게 자기가 무슨 은혜자인 것처럼 교회를 꾸러서 헌금을 뺏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보여서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 꿈을 꾸고 승리제단에 나오게 된다

석관장 교회를 그만둘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배운 것은 없지만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왔고, 그러면 그 예감대로 되었다.

그후 누가 전도하려고 하면 나는 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타나야 그곳에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갈 곳이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해주었다. 언젠가 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내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낱알이 지적하면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생긴 지팡이를 들고 무섭게 나무라시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꿈꾼 바로 그날 나를 미워하는 그 집사가 우리집에 오더니 조희성 이긴자가 나왔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곳에



나는 뭇든지 정성을 다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가보지 않겠냐고 하였다. 마침 어젯밤 꿈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다. 만일 아버지한테 혼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나를 원수로 보는 그 집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을 텐데 꿈이 하도 이상해서 “내가 가보면 안다. 내일 모레 가보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승리제단에 나오게 되었다. 그 집사도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등을 때미시더라고 나중에 말해줬다.

승리제단에 간 날도 전도관에 갔을 때처럼 이상하게 수요일이었다. 제단에 들어가서 함참을 기다리니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박 장로님께서로부터 연결되었던 은혜와 똑같은 은혜가 오기에 이곳은 박태선 장로님의 줄기와 같은 곳이었구나 생각하고 그날부터 21일공부를 시작하였다. 나는 이단이나 아니나 구별하는 기준이 확고하게 서있었는데 그 기준은 박태선 장로의 은혜가 연결되는가 여부였다.

21일공부를 마친 후 매일 제단에 출석해야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돈을 벌고 죽음을 길을

갈 것인지만 않으면 영생의 길을 택하기 위해 직장을 내려치워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영생을 하기로 마음먹고 과감히 직장을 내동댕이쳤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 돈이 궁해졌다. 영생의 길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매일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직장을 잡으려고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먹을 게 없어서 3일씩 굶은 적도 많았다.

온 몸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

내가 제단에 왔을 때에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였다. 남들은 주님께 여기를 안찰해 달라고, 이곳이 아프다며 안찰해 달라고 했지만 난 딱 한 번 안찰을 받고는 더 이상 받지를 않았다. 주님께서 “엄마의 사정도 모르고 안찰을 해달라고 한다”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은 몸시 챙기는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어느 날 주님이 지방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제단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왜 왔어?”라고 물으시기에 나도 모르게 “몸이 많이 아프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몸이 아프다는 말은 절대 주님께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이 나도 모르게 나왔던 것이다. 주님께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가를 알고 있었기에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랬던 것이다. 주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고 나를 지나쳐 가시기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 몸에 있던 병이 다 나아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픈 곳을 낮게 해주시고 고장난 곳을 고쳐주셨던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셨던 것이다.

순종헌금도 내가 하려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다

주님께서서는 순종헌금을 하라고 하셨다. 돈이란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이니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에게 맡겼다가 된다고 하셨다. 순종을 하려니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울 처지라 막막했다. 하지만 순종헌금을 꼭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그 집이 그만 재판에 걸리게 되었다. 계약서만 쓰고 명의이전을 안 해놓은 게 화근이었다. 주님께 말씀드리니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코치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재판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 앉으니 공연히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 순

간 주님께서 내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이 전해져 왔다. 그러면서 이내 마음이 평온해졌다. 3년이 걸려서야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지만 순종헌금을 할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재판을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순종헌금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나는 매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일을 하다가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단상에서 설교를 시작하신 후에 제단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파출부일을 다 그만두고 사출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출일은 밤새하는 야간직업이라 아침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택했던 것이었다.

분신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니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런데 사출일을 하다가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왼쪽 어깨가 바스라지는 중상을 당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 수술을 하라고 하셔서 수술을 했다. 어깨수술을 한 후 3일 만에 주님께서서는 1차 욕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술 후 너무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하도 아파서 김옥주 부인회장님한테 주님께 한번 말씀 좀 드려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동이를 뭉쳐 분신(分身)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내게 오셨다. 얼굴 모습은 안 보이고 두 손으로 아픈 어깨를 만져주셨다. 주님께서 아픈 어깨를 만지니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통증이 가셔서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 폭 잔 적이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신이므로 분신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영애 권사(85세) / 본부제단

2. 감로의 주인공 메시아 미륵불이 출현하는 장소

1) 감로의 주인공 김포에서 출생
한민족의 대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더욱 정확하게 구세진인 정도령이 출생하는 장소로부터 연단 받고 구원의 역사를 하는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하고 있으니 다음의 예언들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서호출생 진인(西湖 出生 眞人)
(격암유록 출생론)
구세진인 정도령이 출생하시는 곳은 서호지방이다.

여기서 '서호(西湖)'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역시 주역의 이치를 따져서 풀어야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즉 서호(西湖)의 글자에서 서(西)는 오행상의 서쪽 방위를 가리키니 수, 화, 목, 금, 토(水, 火, 木, 金, 土)중에 금운(金運)이 출현할 방위이다. 따라서 금(金)은 김(金)과 같은 글자이니 서호(西湖)의 서(西)는 오행상 금(金)에 해당하여 김(金)자로 대체하여 읽을 수 있다. 호수 호(湖)자 역시 물가 포(浦)자와 같은 의미로서 합치면 김포(金浦)라는 지명이 나온다. 구세진인 정도령이 출생할 곳을 숨겨서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남사고 선생 당시의 조선시대는 경기도 지방을 기호지방이라 했으니 서호(西湖)는 기호지방의 서쪽이라 할 수 있다. 김포는 경기도 서쪽 끝에 위치하여 서해 바다와 한강이 만나는 작은 반도 땅으로서 한반도가 동방나라들 중의 땅 끝이라면 김포

감로의 도 ⑨ 제2장. 감로이슬의 주인공



감로의 주인공이 있는 곳에는 사진에 나타난 붉은 빛의 감로처럼 수많은 형태의 감로가 내린다

는 땅 끝 중의 땅 모퉁이다. 이를 두고 성경 이사야서 41장1절 이하에는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에서 의인 한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는 동방나라 땅 끝 대한민국하고도 모퉁이 땅인 김포반도 지방이니 성경과 격암유록이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가 출현할 지명이 일치된다. 또한 김포지방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한반도 지형상의 그림으로 볼 때 사람의 땀줄(생명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미륵불께서 생명의 감로이슬을 들고 나오셨으니 한치의 오차가 없다.

2)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연단

계룡창업 효성조립(鷄龍創業 曉星照臨) 초어화래지산(草魚禾萊之山) 천하명산(天下名山) 노고상망 삼신역활(老姑相望 三神役活) 비산십승(非山十勝)
(世論觀)

계룡을 창업할 곳은 새벽별이 밝게 비취는 곳이다. 이곳은 천하에 이름난 명산인 '소래산'과 '노고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이는 곳으로 삼신이 역사하는 곳

이다. 이 역시 세상의 산이 아닌 승리하신 하나님 구세주 정도령님을 지칭한다.

본문에서 계룡(鷄龍)의 의미를 풀이할 때 닭 계(鷄)자는 새 시대를 알리는 동물을 뜻하고, 용 룡(龍)자는 임금이나 제왕을 상징하니 곧 이 세상의 임금 되신 구세주 메시아 미륵불을 배출하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미륵불이 출현하는 곳이 새벽

별이 비추어 임하는 곳으로 그곳은 어떤 산이나 들간의 지명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인간의 죄를 소멸하고 이긴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특정 인물을 가르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본문을 볼 때 소래산과 노고산은 메시아 미륵불이 숨어서 연단 받던 장소와 관련된 지명이다. '초어화래지산(草魚禾萊之山)' 이라 함은 '소래산(蘇萊山)'을 파자법으로 풀어 쓴 것으로 풀 초(草=艸)자와 고

기 어(魚)자와 비 화(禾)자를 합치면 소생 할 소(蘇)자가 된다. 소래산은 경기도 사흥시에 있고, 노고산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데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시(市)경계를 이루고 있다.

3) 인류구원의 천지공사를 하시는 장소

시종간야 소사지(始終艮也 素砂地) 모동소망 원무심(毛童所望 怨無心) 삼남제일 길성지(三南第一 吉星地)
(未運論)

하나님이 천지공사를 시작 하시는 곳도 소사요, 끝맺음하는 곳도 간방인 소사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털보숭이 어린 아이까지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니 소사는 길한 별이 임하는 남방 제일의 명당이다.

소사는 바로 복사골로 알려진 부천시 소사구를 말하며 역시 소래산과 노고산이 주변에 있다. 또한 여기서 삼남(三南)은 옛날 남쪽 삼한(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던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능지 삼신구세주(能知 三神救世主) 우명제인 궁을선(牛鳴在人 弓乙仙) 지척산천 불피거(地斥山川 不避野)

천봉혼돈 소사립(天崩混沌 素砂立)
(未運論)
궁을 신선이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 계시니 구세주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산과 하천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 혼돈하여 피할 겨를이 없어도 소사(素砂)에서 일어서게 된다.

여기서 '궁을선'은 백십자(白十字)의 신선이란 앞줄의 삼신 구세주와 같은 의미이며 '우명제인(牛鳴在人)' 역시 소 울음소리와 같이 '엄마'라 불리는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 구세주 정도령을 의미한다.

4)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출현

장래지세 유불명(將來之世 有佛明) 미륵출현어세(彌勒出現御世) 이시국계명 계두왕 소치처(爾時國界名 鷄頭王 所治處)
(중일 아함경49권 비상품, 불법의 비밀 여러출현품)

불경 중일아함경49권 비상품에는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는데 신라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출현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니 역시 오늘의 대한민국 땅이다.

메시아와 미륵불은 같은 인도의 팔리어의 어원에서 비롯된 말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가리킨다. 격암유록의 예언은 이러한 모든 경전에 기록된 예언의 총결서(總結書)이며 더욱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서보목 승사 / (주) 해동 대표